

2011

# 윤여숙의 춤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날짜 : 2011년 7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연악당)

후원 :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 부산무용협회 / 춤두레무용단  
동래예술단 풍류 / 부산광역시 생활체조연합회

## 프로그램

1. 강태홍류 산조춤
2. 동래고무(재구성)
3. 이매방류 살풀이춤
4. 동래입춤
5. 창작춤 - 함(숨..머금다)



## 스탭

| 예술감독 : 김은경

| 안무자 : 윤여숙

| 의상 : 예원아트 이서윤 윤여정

| 음악 : 권순장 류성호

| 조명 : 권성훈 전영민 정순원

| 무대감독 : 이영우

| 사진 : 이브 스튜디오

| 영상 : 이호근 HD영상

| 공연진행 : 김유리 강미선 장윤정 장경화 김민경  
김경남 이정희 김익현

# 모시는 글



##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 중에 진정한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내가 무용 예술인으로서 혹은 평범한 가정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춤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실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고, 춤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스승님의 존함을 감히 올리는 못하지만 내 마음과 춤에 아로새겨 진정한 춤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머금고 세월의 흐르는 시간을 머금고 만든 작품이 함(숨:머금다)입니다.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속에 머금은 것들을 풀어내고 승화시킬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6일 윤여숙

## 강태홍류 산조춤

| 출연 - 윤여숙



산조춤은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1893-1957)이 자신의 가야금산조 가락에 춤을 얹어 성립시킨 춤으로 1948년부터 그의 직계 춤제자 김은경에게 전수하여 윤여숙으로 이어지고 있는 강태홍류의 산조춤이다.

이 산조춤은 그 음악의 성격이 우조와 평조 그리고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며, 엇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우조의 산뜻하고 우아함과 평조의 안정되고 편안함 그리고 계면조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며 전 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춤사위를 풀어가는 묘미가 있다.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중모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래고무

| 출연 - 전정숙 강성희  
김무희 박선희  
이희정 조보경  
서은숙 강정아

이번 무대에 올리는 동래고무는 재구성 안무로써 궁중무고의 형식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무대 구성을 부각시켜 흥과 멋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동래고무는 고려초기 궁중 여악을 관장했던 교방청 여기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악정재의 하나인 무고가 동래관아의 敎坊으로 전해져 전래되었던 북춤의 일종이다.

이 동래고무는 4인의 무원들이 중앙에 큰 북을 놓고 서로 자리를 옮겨가며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데 다양한 춤의 기법과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춤사위가 돋보이는 춤이다.

대표적 춤사위는 머리사위, 팔수사위, 맞춤사위, 옆살이, 팔자사위, 북춤사위 등을 들 수 있다.

반주음악은 잔영산(세령산), 염불, 도드리, 창사, 자진타령, 군악의 순으로 진행되며 동래에서는 이곡을 '정악' 또는 '풍류' 라 칭하였다.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 이매방류 살풀이춤

| 출연 - 윤여숙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맺고 풀어내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여 춤사위 하나하나 손끝에서 발끝까지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작의 연결은 전혀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대삼 소삼의 구분이 분명하다. 그 강약의 흐름 속에서 맺고 푸는 데에 이 춤의 멋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살풀이춤은 고고한 개성의 청아한 멋과 정중동의 유려함이 살아 숨 쉬는 한국 전통춤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 동래입춤

| 출연 - 김온경  
박순희 문임선  
김정애 김순애

처음 춤에 입문할 때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사위를 익히게 되는데 이 때, 춤을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로 설입(立)자를 사용하여 입춤이라고도 하고 춤에 처음 입문한다는 의미로 들입(入)자를 써서 입춤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춤은 한국 춤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춤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출 수 있으나 또한 잘 추기도 어려워서 춤의 연륜과 학습의 정확한 기법을 알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춤은 1936년부터 동래권변의 예능사범이었던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춤본으로서 춤의 기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편안하게 보이는 춤의 자태로 춤꾼의 모든 감성이 투명하게 표현되는 춤이다.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 창작춤 - 함 (숨 : 머금다)

| 출연 - 윤여숙

김윤희 차윤선 이승주 김은애 허유미

우주의 신비를 머금은 氣運으로써 생명을 포태한 자연의 존재 그리고 생명 에너지의 신비로움과 정적인 가운데에 무한히 품어 나오는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특유의 여성성으로 다양한 섬세함과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하늘의 양기는 하강하고 땅의 음기는 상승하듯 승(升), 강(降), 출(出), 입(入)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렇게 스러진 시간이 얼마나 오래였을까?

아니면 함(숨:머금다) 그 자체의 순간이 자연의 존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존재의 시간이라는 철학적 요소를 담아 세월을 머금은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안무한 창작 작품이다.

제1장 / 기운을 머금다

제2장 / 생명의 에너지를 머금다

제3장 / 함(숨) - 스러진 시간을 머금다

그리고 . . .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 출 연 자



**김은경** (예술감독)  
부산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사)부산민족예술보존협회 이사장



**윤여숙**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박순희**  
동래여자중학교 교사



**전정숙**  
해연중학교 교사



**문임선**  
전 문현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성희**  
신선중학교 교장



**김정애**  
반송여자중학교 교사



**김순애**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김무희**  
윤산중학교 교사

# 출 연 자



**박선홍**  
한독문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올희**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조보경**  
동래고무 이수자



**이희정**  
동래고무 이수자



**서은숙**  
동래고무 전수자



**강정아**  
동래고무 전수자



**차윤선**  
대영고등학교 강사



**이승주**  
대진대학 강사



**김은애**  
수원대학교 조교



**허유미**  
문화예술 강사

# 을여숙의 춤

세 월 을  
머 금 은  
춤의 향연

# 을여숙의 춤

세 월 을 머 금 은 춤의 향연